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5월 17일**

나의 복음과 심복 몬1:8-14

어제 토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 있는 말씀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놓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꺾고 마귀를 돌려 보낼 때에도 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로도 능히 사단을 꺾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여전히 살아 있고 능히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장면입니다.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의 기준이요 그것이 기도의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안 되어지면 되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헌금 등 순서 하나 하나가 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가장 중심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중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던 신명기의 말씀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의 시험을 꺾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는 현장을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깹니다.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분석하여 역전합니다. 그냥 받은 말씀을 따라 살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전부 다 역전시켰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야 한다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오늘 예배 자리 입니다.

1. 나의 복음

1) 몬1:4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 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우리도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롬16:25에도 “나의 복음”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제는 자신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2) 복음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답이요 인생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만큼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10년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복음을 확립하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대적인 제자들을 이끌어 갈 전도자의 준비를 한 기간이었습니다. 복음에 깊이 답이 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4) 이 준비가 끝난 뒤에 바나바가 다소에 사울을 찾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2사람이 1년 동안을 사역을 하였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5) 그러는 중에 5명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행13:1-3) 이렇게 하여 바울은 이제 현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기적적인 역사와 사람들

이 저주에서 복음 하나 때문에 해방되는 증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6)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준비된 제자들을 보았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 전역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죄수로 잡혀갈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 그리하여 나온 고백입니다. 행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충격으로 받은 이후에 먼저 자신의 깊은 곳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와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장래 수 많은 제자들을 이끌어 갈 전도자 메시지를 준비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8)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많은 눈이 열렸을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고 그들이 스스로 복음 운동을 하게 하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는 사이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9) 고후12:2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인지 복음이 나인지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 “나의 복음”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증거를 보고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복음의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연히 바울과 같은 인생 결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심복

1) 그는 내 심복이다. 오네시모를 보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롬16장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등 중요한 별명이 7개 있지만 심복이란 별명은 없었습니다.
2) 어떻게 바울에게는 그런 수 많은 제자와 심복이라 말할 정도의 제자들이 일어났을까요 12명이나 사도들이 있었고 그들도 다 복음 운동을 위하여 헌신하고 대부분 순교를 다 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바울처럼 있었던 사도는 없었습니다.
3) 이유는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가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성경에 바르면 준비된 자는 반응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복음에 평생을 걸고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복음화가 이미 가슴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자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4) 이러는 중에 심복과 같은 제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개인화를 지속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열리고 전도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이끌어 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5) 그러면 조직을 가진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팀사역 전도도 하고 미션홈도 지교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복 같은 제자를 붙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